힘겨운 대중의 인권 살피는 보살승

〈菩薩乘〉



부산 데파트에 위치한 부산인권센터 사무실 앞에 서 있는 정각 스님. 부산 데파트는 부산 원도심의 상징물이자 민주화 및 인권 운동의 주요 활동처였다.

그대는 자비보살

정각 스님

(86 · 국민행복실천운동본부 이사장)

글 · 사진=하성미 기자

인권, 사전 속에서는 선명한 명제이지만 삶에서는 늘 쉽지 않은 명제다. 동서고금에서 '완벽한 인권'의 시대는 찾기 힘들기 때문이다. 그만큼 모두가 행복하기란 힘든 것이다. 우리의 역사만 보더라도 그렇다. 여러 가지 이유로 인권을 제대로 누리지 못한 사례들이 무수히 많다. 중요한 것은 단 한 사람의 인권이라도 유린된다면 그것은 완벽한 인권의 실현이라고 볼 수 없고, 그 '한 사람'이라는 것이 '누구나'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인권의 문제는 서로가 서로를 도와야 하는 가치이다. 어느 날, '인권'이라는 가치에 눈을 뜨고 서로 챙겨주지 못했던 과오를 스스로 짊어진 삶이 있다. 자신의 인권을 스스로 챙길 수 없는 이들을 돕고 있는 국민행복실천운동본부 이사장 정각 스님이다. 많은 이력을 가지고 있는 스님의 이력은 모두 '인권'이라는 가치에서 출발한다. 인권을 '국민행복'이라고 말하는 정각 스님을 2월 19일 부산인권센터에서 만났다.

마지막 사형집행 참여

1997년 12월 30일. 부산교도소. 살인(공모)죄로 사형을 선고받은 사형수 한춘도의 형이 집행됐다. 우리나라 마지막 사형집행이다. 그 이후로 사형은 집행되지 않고 있다. 그 마지막 사형집행의 현장에 정각 스님이 있었다. 검사, 교도관과 함께 정각 스님도 형집행자로 참여했다. 사형이 집행되고 정각 스님은 시다림으로 사형수의 마지막을 살폈다.

사형이 집행되기 바로 직전 사형수는 정각 스님께 삼배를 올리기 위해 밧줄을 풀어달라고 교도관에게 부탁했다. 스님은 삼배를 올린 사형수의 손을 잡고 얼굴을 바라보았다. 사형수의 얼굴은 두려움 없이 맑고 평온했다. 사형수는 부산구치소에 수감되면서 스님을 만났고, 불교에 귀의해 참회할 수 있었다. 불법의 가피로 생사일여의 가르침에 닿을 수 있었던 그는 죽음의 문제를 넘어섰다. 마지막 가는 길에서 그는 평온한 얼굴로 스님과 마주했다.

이후 스님은 물 한모금도 제대로 마실 수가 없었다. 슬픔을 참기에도 벅차 그 순간이 떠오를 때면 고개를 숙이고 눈물을 삼켜야 했다. 당시를 회상하는 스님의 눈에 다시 눈물이 고였다. 정각 스님은 그때부터 인권에 대해 생각하게 됐다. 사형수를 만나오랜 동안 교화활동을 하고 사형집행을 지켜보면서 여러 가지 인권에 관련된 일들을 목격할 수 있었던 스님은 그 자리를 숙업으로, 그리고 숙연으로 받아들였다.

"사형수와 구치소에 있던 사람들을 만나면서 인권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내가 서있는 이 자리가 내 인연자리라고 생각했고, 그때부터 그 인연의 회향을 위해 살고 있습니다."

마지막 사형집행의 당사자였던 사형수 한춘도는 모범수였고 마지막에 자신의 안구와 시신을 기증했다. 스님의 눈에 그는 살인자가 아니었다. 한춘도를 비롯한 모든 수감자들은 일불제자였으며 불성을 가진 고귀한 생명이었다. 그들을 위해 스님은 관세음보살상을 세워 부산 구치소를 도량으로 만들었다. 하지만 끝내 제자를 자신의 손으로 보낸 듯해 자괴감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야 했던 스님은 마침내 사형제 폐지 운동에 나서게 되었다.

정각 스님은 1968년부터 매주 수요일이면 교도소에서 법문을 했고 재소자의 생일을 챙기고 살뜰하게 그들을 살폈다. 하지만 그들이 교도관에게 매를 맞는 장면을 보면 눈을 질끈 감는 것 외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사형집행 후 스님은 무료법률상담소를 열었다. 예방이 최선이라 생각했다. 우연인지 필연인지 스님은 중앙대 법대를 졸업했다. 당시 함께 해준 인권 변호사들이 있어 가능했다. 당시 함께 한 변호사가 노무현 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 조우래 변호사 등 젊은 인권 변호사들이었다.

"모두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형을 받은 사람들 중에는 억울한 사연도 많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공평하고 공정한 심판을 받아야 하는데 형편상의 이유로 상담 한 번 제대로 받을 수 없는 사람들도 많다고 봅니다. 법을 몰라서 생기는 일이 많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알려주는 일부터 해야겠다고 생각했지요."

스님은 억울한 사람들의 목소리를 대변하기 시작했고 부산자비원에서 운영하는 자비의 전화로 법률상담을 진행해 어려운 이들에게 법률적인 도움을 주었다. 그러나 상담을 이어가고 많은 사람을 만날수록 교도소에서 지켜봤던 인권 유린이 교도소 안의 일만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

"교도소 밖도 마찬가지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죠. 대학생들이 구타를 당하기도 했고, 법의 보호를 받지 못했습니다. 노동자들은 열심히 일을 했지만 돌아오는 것은 해고 소식이었고, 사고를 당해 다쳐도 보상 한 푼 받을 수 없는 억울한 일들이 비일비재 했어요"

'인권'에 눈 뜨다

춘성 스님 닮고 싶어 출가
1968년부터 수감자 교정교화
부산구치소 관음보살상 조성
활동 중 '인권 유린' 목도
1997년 마지막 사형집행 참여
사형수 보내며 '인권' 원력 세워
'사형제 폐지' 운동 앞장서
무료법률상담소 열어 상담봉사
소외층 위해 부산불교인권센터
'동의대 사건'후 부산인권센터 열어

스님이 그들을 위해 세운 것이 부산불교인권센터였다. 그리고 1989년 5월 3일 '동의대 사건'이 발생했다. 동의대 사건은 노동절을 맞아 부산 동의대 학생들이 노동자대회 원천봉쇄에 항의하고 대회를 지지하는 시위를 벌인 것이다. 학생들은 학교 밖 인근 파출소에 화염병을 투척했고, 경찰은 시위대를 해산하기 위해 실탄 24발을 발사하며 주동자를 검거했다. 학생들은 경찰의 총기 난사를 규탄했고 화염병을 투척했다. 경찰이 시위에 참가한 8명을 추가로 검거하자 학생들은 사복경찰 5명을 붙잡아 도서관에 감금했다. 학생들은 경찰과 연행된 학생들을 교환 석방 할 것을 요구했으나 경찰은 응하지 않고 도서관으로 진입했고 그 과정에 도서관 7층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화재로 경찰관 7명이 사망했으며 학생 90명이 연행되고 77명이 구속됐다.

수많은 학생들을 대변하기 위한 방안이 필요했고 스님은 힘을 모아야했다. 그렇게 탄생한 것이 부산인권센터다. 당시 함께 한 사람들이 김영수 목사, 김동수, 송기인, 배다지, 이정이, 문재인, 원형은 등 민주화를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이었다. 스님의 행보는 종교를 초월한 인간애로 확장되어갔다.

B2면에 계속

INSIDE

B3 조준호의 미얀마 수행처 이야기
마하시 선원의 입방과 공양

B5 문화
월제 혜담 스님 대 고려불화전

B6 학술
동국대 2019년 상반기 불교 박사논문(下)